

생명의샘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교회

실로암으로 가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한九:6-7)

이제 그의 눈에 바르시고」(요九:6) 이 말씀은 현대 의학뿐만 아니라 당시 의학의常識으로도 도저히納得이안 가는 治療法이다. 눈에 잘라놓은 면직이나 더마를 얹어 가도 눈은 뜨지 못하는 데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다는 것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九:7)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유서 깊은 장소의 하나였다. 성전 바로 앞의 한 구획에 위치해 있었다.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九:7)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유서 깊은 장소의 하나였다. 성전 바로 앞의 한 구획에 위치해 있었다.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九:7)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유서 깊은 장소의 하나였다. 성전 바로 앞의 한 구획에 위치해 있었다.

「日本の社会で生きること」

関東連春季修養会開催

関東地方青年連合会(会長金健)主催の春季修養会が、去る五月二、三日、東京教会で開かれた。 「日本の社会の中で生きること」をテーマに、今日、在日するキリスト者青年としての生き方を模索した。しかし、連休のはじめということもあって参加者は非常に少なかった。



東京教会でもたれた関東連修養会

永生을 追求하는 길

마가복음 10:17~22

申 鉉 錫 牧師 (下関教会)

說教



「어떤 官員이...」라고 바꾸어 썼고 마태는 「그 青年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라고 소개된 주인공을 누가는 「官員」으로 마태는 「青年」으로 바꾸어 쓴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福音記者의 紹介가 各各 다를까요?



모든 사람이 추구할永生問題

決断이따르는 信仰生活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善한 先生님 제가 永生을 追求하고 있습니다.」라고 물었다. 「永生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善한 先生님 제가 永生을 追求하고 있습니다.」라고 물었다. 「永生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善한 先生님 제가 永生을 追求하고 있습니다.」라고 물었다. 「永生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キムチ・ホルモン・焼肉タレ製造加工

高山食品

代表者 元 洪 植 (福岡教会 長老)

福岡市博多区東那珂 3-9-26 電話 092 (471) 0258

白木金属商会

崔 永 模 (福岡教会 長老)

〒816 大野城市大字瓦田 784-1 電話 092 (581) 1629

〈電々公社認定〉 構内交換機・ボタン電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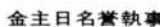
松下通信工業(株)専売代行店 (株)ナカヨ通信機特約店 東亜特殊電機(株)特約店

株式会社 高德通信工業

代表取締役 李 建 豪 (名古屋教会 執事)

〒490-11 愛知県海部郡大治町大字砂子字村東2336 電話名古屋 052 431-3156 (代)

大阪教会서거행



一九三五年 出生으로 本籍은
慶北義城이며 一九五三年, 岐
阜県立加納高等學校을 卒業한
후 家業(金坂建設)을 도왔다
一九七二年 大阪로 移転,
教籍도 大阪教會로 옮겼다.
一九八二年 大阪教會專從職員
으로서 교회를 봉사하고있다.
家族은 夫人 朴成子女史
와 二男一女가 있다.
金主日名譽執事亡 一九一五
年 出生으로 本籍은 慶南南
海郡이다. 一九二七年 堅信礼
를 받고 一九三四年 全州紀
全女學校卒業, 一九三八年渡日

李建豪長老

다. 堂會長 黃義生牧師의 司會 蕭望長老가 피로한후 李建豪	李建豪執事の 長老將立式이 五月二十九日(日)午後三時、 名古屋教會에서 엄숙히 舉行되 은후 李建豪長老가 教會에名 古屋教會가 將立받은 李建豪 長老에게 記念品을 贈呈했다다 全國에서 보내는 祝電은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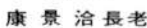
을이다. 一九三三年 幼兒洗禮
를 받고 一九五一年 堅信禮
一九七六年에 집사로 괴택을
받은후 계속 봉사해왔다. 그
간 壯年會를 組織하여 初代
會長이 되었고 壯年指導에 앞
장서왔다. 지금도 高等部教師
로 젊은世代 指導에 全力을
다하고있다.

一九七一年에 株式會社高德
通信工業을 設立하여 代表取
締役에 취임했다. 그외로 韓
日親善協會, 在日韓國YMCA
理事, 國際기드온協會, 韓人經
友會會員 등으로 많은 活躍을
하고있다.

家族엔 夫人 洪勅玉女史와
二男一女 三孫자가 있다.

한후 一九四一年 京都佐伯産
婆看護學校를卒業 오랫동안
病院에서看護員으로서 일해
왔다.

一九四八年 婦人會全國連合
會創立에參加하였고 關西地
方連合會會長, 婦人會全國連合
會會長, 大阪敎會婦人會會長을
역임, 現在는 婦人會全國
連合會後援會會長으로서 婦人
會指導에 앞장서왔다.



康景治執事の 長老將立式과
金漢善長老의 永聖教會로부터
의 加入式이 五月二十九日
(日)午後四時、東京教會서 임
숙히 挙行되었다。

吳允台元老牧師의 司會로進
行、樞泰岳長老(東京教會)의

傳道所)가 敎友에게 각기 권면을 한후 任職한은 長老가 敎會에, 敎會가 任職한은 長老에게 記念品을 贈呈했다. 李仁夏牧師(川崎敎會)가 總會를 代表하여, 慶重重講道師品을 代表하여 地方會를 代表하여 井城學園(社會福祉法人)副園

祈禱 (닐후二一五十二六)「貴히 쓰는 그릇」이란 高完喆牧師(東京第一教會)의 說敎가 있었다. 尹官炳長老(東京教會)가 將立반은 康景治執事와 加入하는 金漢善長老의 略歴紹介가 있은후 地方會長 李大京牧師 司式이라 誓約이 있었	다. 地方會長の 按手祈禱가 있은후 按手委員들이 握手로 두長老를 격려 축하했다. 地方會長이 東京教會 長老들을宣布했다. 吳京世長老가「하늘의 아버지」(헨델曲)을 独唱하여 이직식을 더욱 빛냈다. 李水	長老 黃兵教會)가 將立반은
一九六四年에 東京福音教會田三河島教會에 入信, 同年十一月에 同教會에서 洗礼를받았다. 一九七〇년부터 七四年까지 同教會에서 執事로 奉仕하다가 一九七五年六月에東京教會로 移籍했다. 一九七七年에 執事로 외대반아 꾸준히 奉仕해왔다.	東京教會에 加入한 金漢善長老는 全北完州郡에서 出生 一九五三—五五年 大韓神學校 一九五七—五九年 京畿大學夜間社會事業學科, 一九六一—六五年 東國大學校經商大學經濟科, 一九七〇年 東京・立正大學大学院社會福祉研究科卒, 一	

一九八三年度 教役者・長老
研修會を 다음과 같이 갖게
됩니다.

다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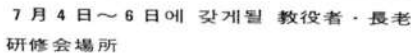
主 題 : 敎會宣敎에 있어서
信徒가 어떻게 參與하나?
講 師 : 姜 秉 君 牧師
(서울남산교회시무)

日 時 : 七月四日 (月) 午後
四時~六日 (水) 正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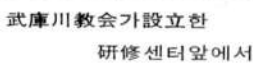
場 所 : 琵琶湖溫泉・紅葉パ
ラダイス イン

滋賀県大津市琵琶湖畔
參加費 : 三二,〇〇〇円 (往
復交通費込 支払合)

參加費込 各敎會가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長, 一九三六年에 幼兒洗礼를 받고 五二年에 信仰告白을 하였다. 一九五七年에 서울 山聖教會를 設立 一九八〇年 永聖教會(旧山聖教會)에서 長老持立을 한다. 그간 日本留學中 一九六八年 東京教會에 入籍, 七一年以來 執事로 피택받아 봉사해왔다.



의 恩惠란 제목의 說敎, 經 過報告 地方會代表 尹宗銀牧 師와 長老會代表 俞鏡潁長老 의 祝辭 禹水吉長老의 祝文 祝電으로 金吉雄長老의 인사 가 있은후 丁仁孝牧師의 祝 禮로 閉會였다.	수히 奉行했다. 研修센터開所式礼拝는 洪永 其牧師의 司會로 進行됐으며 種谷俊一牧師의 祈禱, 李炳球 牧師의 聖書朗誦(고전十五장 八—十二) 金元治牧師의 主님
은데 매우 편리한 센터이다. 研修센터의 場所는 西宮市 塩瀬町名瀬字切上에 있으며交 通은 阪急名塚駅下車, 阪急北 스三田・有馬方面①②에서 승 차 木の元에서 下車하여 걸 어서 五分정도이다. 使用料는 어른이 千円, 小 中生이 七百円, 幼児가 五百 円(一泊)으로 매우 싸비용 으로 利用할수 있다. 이研修센터를 짓는데 建築 費로 一千四百萬円, 備品費로 約三百萬円 들었다.	는데 매우 편리한 센터이다.

武庫川教會(洪永其牧師)가
 設立한 研修센터의 開所式이
 五月二十二日午後三時 武庫川
 研修센터는 總會傘下教會에
 선 처음으로 武庫川教會가 設
 立했으며 婦人會, 青年會, 教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③第5426番

代表取締役 金 光 洙
(名古屋教会 長老)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 話 052(682)1177(代)
自 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電 話 052(711)4398

代表取締役 李 博

〒236 横浜市金沢区並木2丁目7-6-402
TEL (045) 785-5140

創業15年
暁引越しセンター(株)

代表金慶得
(東京第一教会 長老)
〒105 東京都港区西新橋 1-20-15
第二はやまビル 1・3 階

安炳茂博士

聖書에서 宣敎에 關해서만
라고하면 具體的인 問題를 찾
고 묻는 것이 옳다.

나는 여기서 두가지 畧問
題를 眼中에 두었다. 첫째로
우리는 오랫동안 傳道라는 말
을 썼는데 그것이 언제지 모
르게 宣敎라는 말로 바뀌었
다. 아직도 傳道라는 말과 宣
敎라는 말을 混用하거나 그
중 어느 하나만 쓰므로 다른
하나의 뜻을 모함시켜 버린
나. 어째서 傳道가 宣敎로 바
뀌었나. 그것이 옳은가
둘째로 宣敎한다는 敎會生活
즉 敎會를 지키기 위해 秩序
를 만들고 職制을 強化하고

나는 問題인데 新約聖書의
로 表現하면 보냄을 즉 使
으로 나가서 傳播하는 使命
과 모으는 또는 모이는 問題
즉 敎會에로 끌어들이고 그
것을 위해 모든 힘을 바치므
로 막대한 関心이 없어지고
既得權을 지키는데만 関心하
는 傾向이 두드러지고 있는
게기가 있어 緊張關係
에 있다. 지금 우리 特히韓
國에도 그러한 형식이 노골화되
는데 이 宣敎와 모임 즉 敎
會와의 關係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전제하는데로 新約에서
一元化된 宣敎概念은 끌어낼

따라서 그強調點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개괄적이기는 하나 新約을 몇 단계로 分類해서 그特性을살피고나서 처음제기한 問題에로 集中하는 課程을거쳐왔다. 우선 宣敎라는 말이 新約에는 어떻게 表現되어있다? 그것에 해당되는 말은 한마디도없다. 우리가 共觀書와使徒行傳을 포함시켜서 宣敎에 關連되는 말을 찾는다면 다수새가 있다.

①보낸다 ↓ 보냄을 받는다 즉 古說된다는 말인「아포스텔로」이다. 이말에서「아포스로스」가왔다.「아포스텔로」따라서「아포스텔로」와 연결된것으로만래는 나가는것이다.〔마태十一七〕

③宣敎의 內容을 포함한動詞로써 福音을 傳한다 가있다. 名詞를 動詞化한것으로「유앙게리조」가 그것이다. 原來「유앙게리온」이 있는데 누가는 이단어를 改하고 그것것을 動詞化해서 쓰기를 좋아한다.〔누가八·一, 行八·十二三五等〕이表現은 바울도쓴다. 「우리가 傳한 福音」(갈一·八) 그福音을 動詞하므로 福音은 그自体가 어떤 実体가 아니라 그것은 傳播하는 行動과 結果되므로 興味를 갖

子들에게도 이타했다. 가서 하
늘나라가 임박했다고 宣布하
라(마태十一·七 누가九·一二)
同一, 바울이 以前의 資料로 보
이는 宣敎로써 行八·十二에
도 하느님의 나라 전한다(빌
립) 고했다.

마태二四·十四 하늘나라의
福音이 傳播되어 모든 백성에게
傳播된 후야 끝이 온 것이
다. 등

② 예수 그리스도의 福音이
나. 위에 예거한 行八·十二
에 빌립이 하느님나라와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福音을 전파했다고 했는데 이
福音이 명해지는 과정을 거쳐
다하

字架의 事件과 復活事件을終
末事件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
러므로 그리스도의 福音이 強
調되므로 하느님나라 到來의 福
音에 대한 強調가 후퇴된다
以上들에서 달라진것을 指
摘하면 예수는 하느님나라를
宣布했는데 처음敎會는 하나
님나라를 宣布하다가 죽은그
예수의 事件을 宣敎한다 는것
이다. 그러나 共通點은 그것
이 終末事件으로 받아드렸다
는것이다. 즉 이世界 이歷史
의 終末의 革命을 宣布한다
는것이다.

이제 바울 福音書別로 각
그 宣敎理解에 대한 특

NCC 第五回常任常議員会
(一九八三年五月十二日)は、常
議員会宛、在日外国人の人権委
員会の質問状(一九八三年一月
二十日付)に關し、総幹事のメ
モ(別項)にもとづく説明のの
ち、慎重に審議し、以下のよう
に今後の具体的の方針を確認し
た。

一、NCC 議長が所属する教
団または団体の他の常議員一名
を常任常議員とする。NCC 諸
会議参加者を決める場合、議長
は原則として NCC を代表する
ものとみなし、議長の所属教団
または団体の代表を他に求める
ただし、小人数で会議する場合
も、議長が所属教団・団体代
表を兼ねることもあるものとし
る。以上のことは、副議長につ
いても、必要に応じて考慮する
こととする。

二、NCC でもこのことを大
教団から小教団へという順序に
扱う習慣を考え直す。

三、常議員会において幾分で

も時間をとり、在日韓国・朝鮮人に関することがらを学習する機会をもつ。

四、ふだんに関心をもち、機会があれば在日外国人の人権のための行動に参加するよう心がける。(このことは、被差別部落民、障害者等に関しても同様にいえることである。)

総幹事の説明、意見のメモ

表題質問状は、昨秋NCCに起った二つのことがらを取りあけている。一つは日本の教科書問題をとりあげた日韓教会協議会(十一月二十五・二十七日、日本YMCA同盟研究所・代表「三名」)の参加者に関すること。もう一つはWCCチーム四名を迎える集会(十月二十二日夕、日教団B会議室・参加者三人)における発表時間配分に関することである。

第一の質問(日韓教会協議会参加者に関する件)に関する

説明。

日韓教会協議会日本側参加者は、総幹事が主に李議長とはかり、講師、NCC役員、役員が所属しない教派の代表、教科書問題に関係のある者、アソウス・バーソンといった順序で選び、参加者を依頼した。したがってNCC議長李牧師は在日大韓基督教教会を代表するという理解であった。

会議で在日韓国人問題にふれることに關しては、在日韓国人の人権委員会委員長の参加があった。また同委員会は、この会議のちのちで、在日韓国人の人権に関する韓日NCC協議会開催を予定していた。

このような事情にあったが、会議開催中、姜栄一牧師より、総幹事に對し、他に在日韓国人を加えるべきだとう要望があり、総幹事は李議長とはかり、急提、金君植牧師に来て頂いた。姜牧師が主張されたように、はじめから李議長の他に同教会

た。総幹事は配慮を欠いていた。第二の質問（WCCチーム四人を迎える集会）に関する説明 吳允台牧師の発表時間が短縮されたという事実はない。その前の二人の発表が予定よりはるかに長くなったため、時間がなくなり、総幹事は吳牧師に、「簡潔にお願いします」という、吳牧師は「短かく準備したのに、それを縮めるといいますか」と立腹された。総幹事はすぐ非礼をわび、吳牧師は準備した原稿を読み了えた。その後、吳牧師は直ちに席を立たれた。のち、総幹事は謝罪するや、吳牧師は翌日これを韓国料亭に招き親しく語りあう機会を与え、励ましを与えてくださった。

とつさのこととはいえ、総幹事の無思慮は明らかである。このことは、差別を受けている人々の痛み——吳牧師の立腹とその翌日に及ぶ行動は、総幹事の不注意な言葉が吳牧師にとって

どんなに重大な非礼を意味するものであったかを示している。——に対する感覚の鈍さをあらわしている。これは人間として大きな欠陥である。しかし、その者を広い心で受け入れ、励まして下さる吳先生の態度に、大きな支えを見出す思いがする。今後について

失敗はこれによって学び、少しでも隣人の痛みに対する感覚をもつ者となる機会として、生かすことができる。今後はNCCの諸活動において、在日韓国人がおかれている差別の状況、在日韓国人の苦悩を問い、日本人の責任を正しく認識するよう皆で心がけて行きたい。

具体的には

一、NCCの議長に選ばれた代議員は必ずしも、所属教団または団体を代表するものとして数えないようにする。

二、NCCで……（以下、常任常議員会決議の二、三、四、と同一）

新井教會(孟哲輝牧師)와 講演을 통해 兩敎團은

宣
教

車
具
ヤ
(誠

金
金
(正

武庫之
4 3

教団西新井教会서 가진 第三回交流会

〒601 京都市南区東九条鳥丸町 2 2
電 話 0 7 5 - 6 8 1 - 6 7 5 1 番

大阪府池田市空港1-7-15(大阪国際空港前)
TEL (店) 06-843-0816
TEL (自) 06-855-3865

〒661 尼崎市南武庫之荘10丁目1-17
電話 (06) 436-7840(代)

本社ビル 大阪府守口市竜田通1丁目13番地
電話 (06) 991-3222(代)